

넷플릭스가 촉발한 미디어 빅뱅, 통신사 주도 '3강 체제'

방송·통신 지각변동

〈상〉 급물살 탄 유료방송 M&A

공정거래위원회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간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간 인수합병 최종 승인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미디어 시장 진입 등으로 유료방송시장은 첨예한 경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가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통신 시장 지각변동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해 유료방송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 정부 심사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SKT “인허가 승인 취득에 최선”
LGU+ “조치사항 충실히 이행”

사업 방향 따라 시장 환경 변경

양사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방통위 인허가 승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계기로 통신과 방송시장에서는 '미디어 빅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신사가 유료방송업계의 케이블TV를 품으며



통신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독과점 폐해를 이유로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판도에 발맞춘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미디어 생태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입으로 경쟁 환경이 급변해 통신·방송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 디즈니, AT&T 등이 OTT 시장에 진입하며 통신·방송 융합

이 이뤄졌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1위 사업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점유율 31.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SK브로드밴드(14.3%), CJ헬로(12.6%), LG유플러스(11.9%), 티브로드(9.6%), 딜라이브(6.3%) 순이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LG유플러스·CJ헬로 합산 점유율이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산 점유율이 23.9%가 된다. 1위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져 통신 3사 위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는 셈이다.

공정위의 승인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심사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상 유료방송 최대액 출자자가 변경됨에 따라 방

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분석해 결정을 내린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티브로드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나 변경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 심사 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심사항목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부과조건 등을 의결해 과기부에 통보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에는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방통위는 이달 1일 과기부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건에 대한 사전동의 의견을 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기일을 내년 3월 1일로 예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연내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케이블TV 업체 인수 후 사업방향에 따라 미디어 시장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M&A 또한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삼성전자는 투모로우 스토리를 열고 사회공헌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회공헌 공모전 성과 공유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

S/W 창작 대회·시상식 등 진행
33개팀 개발 솔루션 시제품 전시

삼성전자가 8일 서울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 공모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공모전인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공모전인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스마트 교육을 선도하는 교사를 위한 삼성 스마트스쿨 미래교사상 시상식 등을 진행했다. 33개팀이 개발한 솔루션 시제품도 전시했다.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지원자 1356개팀 5006명 중 대상 2팀을 포함한 11팀을 최종 선발했다.

기후변화를 탐지해 재난을 예방하

는 솔루션을 개발한 '레인버드지오'팀이 아이디어부문 대상을, 스마트 유목가축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라이브스톡' 팀이 지난 수상작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임팩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삼성 스마트스쿨 미래교사상은 경북 영천 자천초등학교 박지훈 교사가 대상 영예를 안았다. 농산어촌 학교에서 전교생 28명을 위해 스마트스쿨을 이용한 디지털·소프트웨어·시민 교육 과정을 만든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시상식 이후에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수상작들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스쿨 미래교사상' 수상자의 교습법을 스마트스쿨 교사 연수, 스마트스쿨 참여 기관에 우수 사례로 전파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브랜드 K 선정되고 마음이 든든했어요”

Q 르포

가치삼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백년가게·스마트기술 체험관 등 마련
박영선 장관·김상조 정책실장 참석
데이터 3법 설명, 국회 통과 촉구

“여기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며 많이 보러 오셨어요. 직접 만져보시기도 하고, 구매도 해가셨습니다. 특히 30대들 반응이 좋았어요.”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삼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가능성 도마 '더블세이프 도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더블세이프 도마는 구획을 나눠 김치국물이나 과일즙 등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제이엠그린은 이 제품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에 선정됐다. 이 대표는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에서 홍보를 잘 해주시니 브랜드 K 선정된 다음부터 든든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가 G마켓과 연동된다고 해서 참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 요즘 모든 제품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팔린다”며 “인터넷에서 상위 노출돼 제품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가치삼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온라인쇼핑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삼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 마련된 중국 왕홍 채널 시청자들에게 한국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가치삼시다'는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을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정해졌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 운영 ▲온·오프라인 특관전 ▲브랜드 K·백년가게·스마트기술 체험관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스를 연 소상공인들을 응원했다. 브랜드 K관부터 우수 소상공인, 아이디어 제품, 백년가게 등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격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박 장관과 김 실장은 중국 오픈마켓에서 소풍물을 직접 운영하며 시청자 1000만명 이상을 확보한 3명의 왕홍 부스를 방문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소

상공인 제품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브랜드 K 로고가 박힌 예코백을 들어보이며 “이 마크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제품이니 믿고 사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과 김 실장이 왕홍 부스에 방문했을 때 사위기에 꽂아 쓰는 비타린 제품이 완판되기도 했다.

이날 박영선 장관과 김상조 실장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체험관 '쇼루밍관'을 연 KT 관계자는 “신청만 하면 유동인구, 카드 사용량 등 데이터로 연 매출 예측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3법이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우리나라가 5G 통신망 통해 빅데이터를 전송하고 만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